

§ 교회 목표 §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엡 5:26-27)

十행동지침十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시간 속에 있는
영원 II

(요 5:24-27)

이종윤 원로목사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 우리에게 그 생명이 완성되는 것은 부활할 때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2.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5:26).

중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먼저 주시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거나 교회의 장로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든 친척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기의 조상들이 섬긴 신들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시고 사람을 찾아오시므로 사람이 응답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도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전에 하나 만의 하나 가운데 나를 뽑아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출중해서 예수님의 전령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예수를 보고 엘리사벳의 복 중에 있는 아기가 펄펄 뛰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복 중에서부터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로 불학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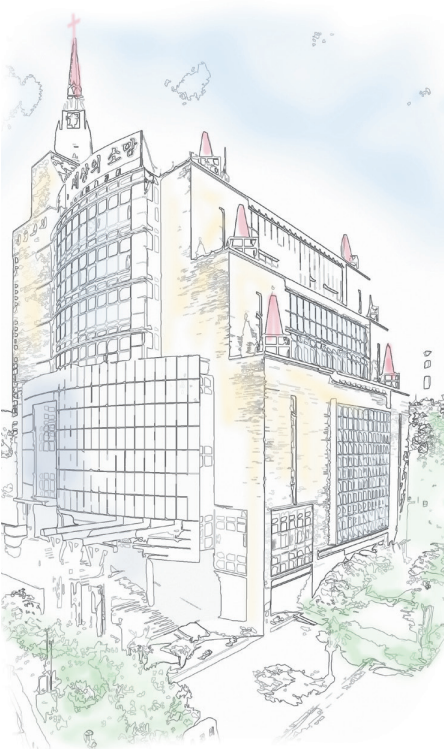
이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므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4절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는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현재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도 현재인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옮겨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부활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자책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은 자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자입니다. 성도는 환경이 괴롭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낙담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25절의 ‘죽은 자’는 죽어서 땅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데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마 8:22, 엡 2:1-5). 살아난다는 뜻인 생명을 소개하는 동사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입으면 믿음이 자주 커진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신앙과 확신이 점점 더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하루에도 열 번은 변합니다. 가장 강한 것이 잘 부러집니다. 사람은 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떠나면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예수님 떠나니까 도적이 되고 권사님도 예수님 없으니까 사기꾼이 되고 목사님도 예수님 없으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2020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 코람데오(CORAM DEO)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11. 16(월) - 11. 21(토) 새벽 5:00 - 6:00 / 강사 : 손달익 목사

2020 사명자대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0 사명자대회는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10월 4일부터 시작하여 은혜롭게 달려와 이제 마지막 주간을 남겨두고 있다.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하여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

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도려 기도해야 한다.

내일 새벽 5시에 시작하여 21일(토)까지 진행되는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받기 바란다.



손달익 목사
(서문교회 담임목사)

강사 손달익 목사 약력

- 서문교회 목사(1986-현재)
- 세계개척교회연맹 아시아 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 현, CBS재단 이사장
- 현, 은평장학재단 이사장
- 현, 국민문화재단 이사
-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 졸

2020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말씀 본문 및 설교제목

날짜 및 요일	성경본문	설교제목
11월 16일(월)	사 6:1-3	하나님을 만난 사람
11월 17일(화)	사 6:4-7	자아인식의 은혜
11월 18일(수)	롬 12:1-2	향기로운 제물처럼
11월 19일(목)	행 13:1-3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꾼들
11월 20일(금)	창 41:37-43	위기를 극복하는 지도력
11월 21일(토)	행 2:1-4	성령충만하십니까?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29주년 감사주일·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 시 할렐루야찬양대의 특별찬양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교회설립29주년 감사주일이며 추수감사절이다.

교회설립을 감사하고 일년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추수감사헌금을 봉헌한다.

또한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의 추수감사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고 지금까지 서울교회를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주간이 되도록 하자.



순례자 지령 1500호 발간

서울교회 교회설립과 함께 시작한 순례자가 오늘로 지령 1500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순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위원

- 지도 : 서명철 목사
- 부장 : 차도훈 장로
- 차장 : 허숙 권사
- 편집위원 :

김애리1 신동기 유은경
이준태2 정승균 최영철3
최정숙4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홍승전·황정임 이영재 박정자 김희진 이영민
정권재 윤요섭·안재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2020 성경암송대회 은혜중에 마쳐

지난 주일 성인부 본선을 마지막으로 2020 성경암송대회가 은혜 중에 마쳤다.

2020성경암송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최측의 다양한 방법과 연구로 은혜중에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50명, 일반 4명

사랑부 1, 에바다 1, 영어예배 1, 유아·유치 11, 유초등 36 (학생 38, 성인 26) 총 54명 출전

영어암송

· 대상 : 노문환 / · 믿음상 : 최영은 한예승
일반부

· 대상 : 김진달 한춘홍

· 사랑상 : 장정화 / · 장려상 : 이영재

사랑부

· 장려상 : 최지훈

유아부

· 대 상 : 최아준 / · 사랑상 : 정혜슬

· 믿음상 : 김서한 / · 소망상 : 이린하

유치부

· 대 상 : 이하륜 / · 사랑상 : 한세희 오수빈

· 믿음상 : 최은성 유하민

· 소망상 : 정혜윤 / · 장려상 : 김재경

유년부·초등부 단체

· 사랑상 : 학생팀1

김재윤(1) 최지성(2) 한세아(3) 김하준(3)

윤서진(3) 오유민(3) 조건우(4) 임하람(5)

이시우(5) 배은찬(5) 장유정(6)

· 믿음상 : 학생팀2

이하은(1), 유하연(3), 배은준(4), 조연우(6)

· 소망상 : 교사팀

박미라 김혜연 송미령 오윤걸 노애리 남재은

신경미 김동욱 이수경 김민아 장윤기 박미혜

유수진 이수정 한가형 임채연 김동현 김연화

박은영 김보영



순례자 지령1500호를 축하하며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원로 목사 이종윤

순례자는
바른신학, 바른생활, 바른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서울교회를 반사하는
투명한 거울이 되어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매체가 되기를...

고 부강케 함으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세움 받았던 사울이 나랏일은 외면하고 자기 왕권 쟁취만을 위해 다윗 잡는 일에만 몰두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혐조적 방해꾼 노릇을 한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순례자는 서울교회 설립과 동시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교회를 섬기려고 서울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와 성도의 바른 삶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순례자가 반포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순례자는 그날 이후 인생 순례의 길을 걷는 이들의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영혼의 고향인 천국의 소식을 읽기도 하고, 상처 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사랑의 손길을 감지하기도 하며, 목마른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광야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례자를 보면 서울교회가 보입니다. 반듯한 거울이라도 내 얼굴에 티나 흠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보기 싫다고 오목렌즈나 볼록렌즈 거울을 보면 그 모습은 더욱 흉측하게 보일 뿐입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순례자는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독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감동어린 기사로 계속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는 바른신학, 바른생활, 바른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서울교회를 반사하는 투명한 거울이 되어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매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Soli Deo Gloria!



순례자 지령1500호를 축하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인선 은퇴장로
(5교구)

순례자 지령 1500호를 축하드립니다. 근 3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울교회와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순례자를 매주 발행하기 위해 애쓰시고 힘쓰신 편집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편집부장으로, 2010년에는 서울교회 20년사 '코람데오' 편찬위원장으로 순례자를 섬겼습니다. 순례자 편집부장을 하는 동안 서울교회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종윤 목사님이 은퇴를 하였고, 후임목사가 동사를 거쳐 부임하였고, 서울교회 20년사 '코람데오'가 발행되었습니다. 당시 서울교회는 스무 살 청년으로 개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고 있었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더 높이 날기 위해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서울교회는 이제 30살이라고 하는 장년의 세월 속으로 성큼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1991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울교회를 창립하여 기쁘고 가슴 벅찬 일도 많았지만 지난 5년간은 우리 모두가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할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울교회 안에 가장 힘든 기관은 순례자가 아니었을까 감히 생각

해 봅니다. 각 기관과 부서마다 힘들지 않은 곳이 없었겠지만 최전선에서 왜곡과 거짓을 맞닥뜨리며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 힘겹게 싸운 편집위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더구나 기적과 같이 교회를 회복하고 맞는 순례자 지령 1500호라 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금요일이면 편집실에 모여 순례자를 편집하며 어떤 주간에는 기사가 넘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주간에는 기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머리를 쥐어짜며 편집을 하는 편집위원들을 가까이서 보며 늘 안타깝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장시간 지속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정지되었던 올 한 해는 매주 순례자를 발행하는 일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기적과 같이 발행된 순례자가 주일에 온라인에 올라오면 반갑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순례자를 꼼꼼하게 읽어보며 편집위원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지나 이제 장년이 된 서울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며 과연 하나님께로 바로 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례자가 앞서서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영원히 서울교회의 지난 역사와 더불어 가는 길과 오는 앞길도 밝히 비추주는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자 지령 1500호를 발행하며

진리를 따르는 순례자의 발자취



차도훈 장로
(순례자 편집부 부장)

서울교회 설립과 동시에 창간한 순례자가 교회설립 29주년을 앞두고 지령 제 1500호를 발행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교회 주간 소식지인 순례자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과 목회방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 결의 사항, 교회 공지사항, 성도들의 동정 등을 게재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교회의 소식지와 전도지로 그 사명을 다 하고자 지령 제1500호를 발행하기까지 29년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편집하고 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은 교회내의 갈등과 분열이란 뜻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순례자는 정확한 진실을 알리려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편집위원들의 결단과 헌신으로 담임목사의 부당한 편집권 침해에 대한 항의 표시로 2016년 2월 7일자 순례자에서 해당 기사를 공백으로 남긴 것과 강남노회의 편파적인 행정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법리적 항변으로 2016년 10월 16일자 순례자와 박노철 목사의 용역을 동원한 예

배당 불법점거로 2018년 3월 11일 순례자를 휴간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꺾이지 않는 사명감과 최선을 다한 편집위원들의 열정과 각 부서의 사역과 비전, 교단총회 재판국과 사회 법정에서 5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진 각종 송사와 판결내용에 대한 설명, 각종 행사 진행과 결과보고, 많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받은 바 은혜의 신앙고백이 오롯이 담겨있는 원고들을 제공하는 등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에 힘입어 순례자가 지령 제1500호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교회설립 2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2년 6개월여의 본당 불법점거를 풀어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순례자 1500호 발행을 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회 역사의 기록물인 순례자 지령 제 1500호 발행에 즈음하여 기록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며 이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선배 편집위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비추보는 거울이 되듯이 순례자의 기록들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할 서울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비추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Soli Deo Gloria!



순례자 지령 1500호를 발행하며

서울교회 역사의 발자취 순례자



허숙 권사
(순례자 편집부 차장)

순례자 지령 1500호를 발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순례자는 서울교회가 창립됨과 동시에 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례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례자에는 성도들과 소통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순례자에는 성도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순례자는 전도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순례자를 보면 서울교회의 목회 방향이 보이고 목회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순례자에는 여러분의 지도 목사님, 편집부장님, 편집위원들이 거쳐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립 초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편집의 기초를 마련해 주신 박은경 집사님, 오랜 동안 편집부 차장으로 순례자를 섬기시며 편집위원들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도모하여 주신 신동기 권사님, 그리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교회와 인쇄소가 있는 충무로를 뛰어다니시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준식 집사님 등 모두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준식 집사님은 순례자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진리와 진실을 사수하기 위해 편집위원들과 마음을 맞추며 일을 하신 분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분

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미래를 보고 싶으면 지나온 역사를 살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서울교회의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로 여기에는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이제 청년기를 지나 성숙한 어른이 되는 지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난 5년은 서울교회에 혹독한 세월이었지만 옛 말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으니 이 시간도 서울교회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세계 정세와 이 나라와 지난 5년간의 서울교회를 보고 겪으며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길로 이끄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 역시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제 서울교회가 다시 한 번 발돋움을 해야 하는 이 때에 순례자도 최선을 다해 교회의 참된 회복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순례자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편집위원 모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순례자 지령 1500호를 축하하며

신을 벗은 순례자 일천오백

신동기 권사(12교구, 시인)

하늘 나라
꺼지지 않는 불
죽음으로 내어 준
당신의 몸
서울교회여

만세전 부르신
거룩한 땅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순.례.자.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피로 적신
무릎꿇은 순례자여

세상 한복판
정의와 사랑에 목마른
우리 피붙이들
세상 날선 칼날위에
소리없는 통곡
아직 눈물 자국 여전한데..

어찌하랴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950일 기막힌 침묵

쫓겨진 하늘
읍소하는 기도의 눈물은
순례자 가슴에 별이 되어
하늘 위 하늘까지
지지 않는 위대한 별

스물아홉 해
순례의 외로운 긴 여정
하늘 휘돌아
내일의 찬란한 꿈으로
장렬히 피어난 순례자 천오백호
영광! 영광!

오늘도
원수의 목전에서
눈부신 천오백 개 별
상을 베푸시니
그 하늘에 쏟아 부어
칠후같은 한국교회
새 하늘 새 땅으로
영원히 밝히려라



지난 주 찬양예배시간에 '2020 성경암송대회' 수상자들의 성경암송 합창이 있었다. 시편 119편 전 장을 각자 나눠서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수상자 자세한 명단은 본지 3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진촬영 : 김혜연 집사 임대중 집사 하혜심 집사)



황병석 집사
(2020 사명자대회
안내분과장)

금년 사명자대회는 아주 특별한 기도 기간입니다.

『코람 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사명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코람 데 오 (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하여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교회가 그간 양적 발전을 거듭하며 사회적인 명성과 규모를 자랑하여 왔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점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면서도 심히 나무라셨습니다. 그 주신 시련 속에서 쪽정리와 알곡을 가려주시는 은혜도 내려 주셨습니다.

서울교회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신실하지 못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서 건져내어 주세요’

“그래 이제 되었다. 앞으로는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거라”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늘 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명자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여섯 가지 공동기도문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변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

탐욕과 어리석은 신념에 사로잡혀 교회를 망가뜨린 이들에게 진정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건대, 주님을 슬프게 하였고 교회를 짓밟았던 우리들을 저희는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달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합니다.

2020 사명자대회 중, 5년간의 힘든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성직자와 성도들,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자의 기도가 하나님 면전에 닿을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출석교인 대상 차량등록 실시

11월 한 달 동안, 12월부터 등록차량만 출입 가능

교회 시설이 정상화 되어감에 따라 출석교인들의 차량등록을 새로 받기로 하였다. 이는 성도들의 원활한 지하주차장 이용을 위한 방안이다. 11월 한 달 신청받은 후 12월부터 등록차량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 차량등록 신청 대상

은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 모두이며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여 사무국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

봉사자 모집

교회 곳곳에서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차량봉사 : 김광태 집사에게 연락 바람
- 주일 2부 예배 안내위원 : 부장 예완식 집사, 차장 김순진 집사에게 연락 바람
- 출입교인 발열체크 및 Q.R. 교인증 확인을 위한 봉사자 : 사무국에 문의 바람

교회 내 분실물품 조사

교회는 지난 10월 21일(수), 박노철 목사 측으로부터 점거 중이던 교회건물을 반환받은 후 부서별 점검 및 대청소 중 교회내 집기 및 개인물품 다수가 분실되었다는 의견들이 접수되어 실태조사에 나섰다.

각 부서별로 분실물품 목록을 정리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기 바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순례자 주최 -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

오늘 마감, 다음 주 순례자를 통해 발표

2020 사명자대회 일환으로 순례자 주최로 열린 '2020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오늘 마감한다.

현재 성인부 12점과 학생부 52점이 출품되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바란다.

* 참가방법

1.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코람데오(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혹은 "코람데오(Coram Deo)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를 손글씨로 작성

2.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성구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2:15)

* 제작방법

사이즈 : 최하 A4용지, 더 큰 사이즈도 가능하며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손글씨로 작성하고 스캔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 순례자에 전달하면 된다. 손글씨 재료나 참가 갯수 또한 자유다.

* 참가 자격

유아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서울교회 성도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기한

2020. 11. 15(주일)

*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참가자들에게는 순례자에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다린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16일	월	롬 6:1-8:30		눅 1-4	
11월17일	화	롬 8:31-11:36		눅 5-8	
11월18일	수	롬 12-16		눅 9-11	
11월19일	목	고전 1-3		눅 12-16	
11월20일	금	고전 4-7		눅 17-20	
11월21일	토	고전 8:1-10:22		눅 21-24	
11월22일	주일	고전 10:23-12:31		요 1-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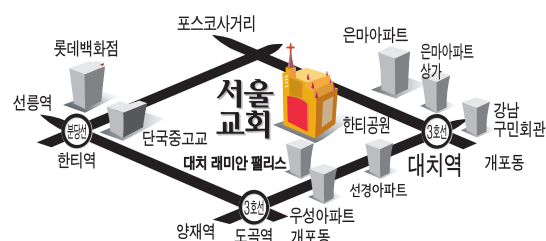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1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모이는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코람 데오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2. 11월 22일(주)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제 29주년 감사주일을 맞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